이 시, 옳을 시

악할 악

재목 재

미울 증

넉 사

있을 유

버금 아

부릴 사

북녘 북

대할 대

다닐 행

한국, 나라 한

일 사

동녘 동

배울 학

열 십

펼 서

몸 체

옮길 운

스스로 자

채울 충

뒤 후

들을 청

일백 백

손자 손

사람 인

바다 해

대쪽 간

어조사 어

강 강

앞 전

서녘 서

아홉 구

때 시

가운데 중

멀 원

가까울 근

석 삼

글월 문

아래 하

다를 타

머금을 함

즐길 락

착할 선

날 일

물 하

과녁 적

사이 간

할 위

가죽 혁

서로 호

한 일

빌 공

반드시 필

땅 지

버금 차

여섯 륙

윗 상

참 진

볼 시

아들 자

익힐 습

큰 대

하늘 천

글자 자

성낼 노

나라 국

논할 론

목숨 명

느낄 감

깨달을 각

놈 자

일만 만

일천 천

두 이

가을 추

집 가

봄 춘

서로 상

고칠 개

으뜸 원

없을 무

넓을 광

번성할 번

아비 부

될 화

책상 안

여름 하

온전 전

수레 거, 차

달 월

여덟 팔

어미 모

일곱 칠

말 마

겨울 동

기쁠 희

몸 신

겨레 족

각각 각

왼 좌

다스릴 리

아닐 비

길 영

다섯 오

구할 구

아닐 불

사랑 애

남녘 남

슬플 애

작을 소

오른 우

쓸 용

살 활